

임실군 국가공모사업 청신호

나물천지조성사업 이어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선정 국비 1억5000만원 확보... 관광콘텐츠 활성화 가속도

임실군이 새해벽두부터 군민제약형 국가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2018년도 넉넉한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임실군은 한국임업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나물천지 조성사업이 선정된 데 이어 '눈썹만로도 지루하지 않은 길'로 잘 알려진 삼진강 길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삼진강 길 주변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여행 사업계획을 높게 평가, 최종사업으로 적극 육성,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역의 특색 있고 고유한 생태자원을 핵심 관광콘텐츠로 하여 체험프로그램 개발·운

영, 전문 인력 육성, 홍보마케팅 및 관광 상품화 등을 통해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을 위해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진강 시인의 길 따라 걷는 인문학 여행' 사업예산은 총 3억원으로 이중 50%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삼진강변의 고유한 생태, 경관, 문화 등을 콘텐츠로 하여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 모으는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육성,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삼진강 옛길 정비 및 개선, △편의시설 확충,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인력 양성 및 생태교육, △관광상품 기획·운영, △삼진강살리기 캠페인 등이다.

삼진강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유명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이 넘치는 강변길'로 잘 알려져 있으며, 삼진강 시인인 김용택 시인이 '눈썹만로도 지루하지 않은 길'이라고 예찬한 곳이다.

심 민 군수는 "새해부터 나물천지 공모사업에 이어 문화관광체육부의 공모사업까지 선정, 국비를 확보하게 농촌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지로서의 임실을 만들어가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며 "지역의 특색 있고 고유한 생태자원과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을 접목시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생태테마 관광명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지난해 4,700여명이 군립도서관을 이용했고 도서대출은 6만1,000여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순창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료사진.

순창도서관 사랑방 역할 톡톡

지난해 4만7000명 방문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남녀노소 만족도 높아

순창 군립도서관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군민의 사랑을 톡톡 차지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4,700여명이 군립도서관을 이용했고 도서대출은 6만1,000여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시, 공연, 특강, 도서 취미 등 군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846회를 운영해 전 군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는다. 군립도서관이 이처럼 사랑받는 이유는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점이다.

특히 군립도서관은 어린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 군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문화공간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해 진다. 올해 순창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기로 확정된 프로그램은 30개 과정이다. 인문학 특강, 책구러미 지원사업, 북스 타트데이 운영 등 전시, 공연, 특강 등 분야에서 700회 정도가 진행된다.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이용환경 개선 및 맞춤형서비스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군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군립도서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허관욱 문화관광과장은 "군립도서관이 전 군민들을 아우르는 문화 사랑방으로 사랑받고 있다"면서 "올해도 군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강좌를 운영해 군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지역농업 선도농가 육성 만전

임실군 농촌지도 시범사업 박차

임실군농업기술센터가 2018년 농촌지도 시범사업에 32개 사업을 발굴, 17억원을 투자기로 하는 등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달 3일까지 첨단농업기술 전파에 앞장서고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선도농가,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32개 농촌지도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 사업은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 등 농촌지원과 소관 6개사업과 농업용 드론 활용 비용생비 절감 단지 사업을 포함한 기술보급과 소관 26개 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32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임실군내 거주 농업인으로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습단체 회원, 사업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또는 단체)로서 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사업 분야별 평가기준에 의거 현지조사를 통하여 2월 28일 임실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각 농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내역을 참조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농업기술센터 각 사업담당팀 및 가까운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한파 녹이는 기부행렬 눈에 띄네

남원시 사랑의 온도 자체목표액 4억원 초과 달성

남원시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희망 2018나눔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기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남원시 사랑의 온도는 자체 목표액 4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남원시는 현재 4억원 모금실적으로 전년 대비(3억8,800만원) 105%이상 실적을 기록하고, 이번 캠페인에는 자체적으로 4억원으로 목표를 높였으나, 목표액도 102% 초과 달성했다. 한편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따른 전북 평균(10월 기준) 모금액은 61억3,800만원으로 사랑의 온도는 82.3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새희망제작' 사건과 '어금니 아빠' 이영화 사건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 사랑의 온도가 식고

있는 가운데, 작은 소도시의 후끈한 기부 온도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남원시가 모금한 성금 중 상당수는 관내 기업과 사업자로 비율은 50%이며,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도 14%로 솔선수범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최근 12월 18일 '희망!!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모금 특별방송'을 실시의 효과로 개인과 단체의 기부도 높았다.

한편, 남원시는 2018년 1월 31일까지를 이뤄지는 '희망 2018나눔캠페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 관내 기업체 방문 등에 순회 캠페인 추진을 통해 기부 한파 속 얼어붙은 기부문화 녹이기에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은 11일 대설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 구축, 제설장비 등을 긴급 동원해 대대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최대 폭설량에 제설작업 총동원

임실군, 비상근무 체계 구축·장비 57대 투입

전북지역 전역에 사흘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도내 최대 적설량을 기록한 임실군이 대대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11일 현재 임실군 적설량은 28.5cm로 대설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 구축, 제설장비 등을 긴급 동원해 대대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제설작업은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 주요시내 36개 노선 272km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 굴삭기, 소형트럭을 총동원해 새벽 4시부터 노면제설 및 환경에 해로운 염화칼

슘을 지양하고 제설제 소금 102톤을 살포했다.

또한 군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마을 안길 및 진입로, 간선도로 등 덤프트럭 정비 진입이 어려운 구간은 트랙터 57대에 제설장비를 부착, 제설작업을 실시해 차량 및 주민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임실군 중기연합회와 연계해 포크레인인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 30여대를 동원해 임실읍과 오수면, 관촌면 등 주요 시가지 도로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치우는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출산 여성농업인 돕는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남원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남원시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지 소유 규모가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자(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 등이 해당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과 가사 일을 돕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최대 7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인건비 지원기준은 1일 6만원의 90%인 5만 4,000원을(최대 378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도우미 이용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립도서관 겨울방학 매직쇼

순창군립도서관이 오는 13일 토요일 오전 11부터 겨울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나는 겨울방학 사이언스 매직쇼' 공연을 펼친다.

'사이언스 매직쇼'는 그동안 학교 교육과정에서 부족했던 과학실험을 보충하고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과학의 원리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기획한 과학체험 공연이다.

1~2부로 나누어진 이번공연 중, 1부에서는 기초과학을 주제로 한 '사이언스 매직쇼'로 전기 없이 빛을 밝히고, 꺼진 불을 다시 살려내며 손바닥 위에 불을 붙여도 뜨겁지 않은 신비한 과학의 세계를 참여자가 직접 실험하고 체험해 봄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미술과 같이 신기하고 재미있도록 공연형식으로 진행한다.

2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3D 프린터에 관한 내용으로 3D 프린터의 원리를 이용하여 나만의 입체 구조물을 도안하고 만들어보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과학의 재미와 소의 즐거움을 함께 맛 볼 수 있는 신나는 방학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과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